

WEBVTT

00:00:09.894 --> 00:00:11.135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235 --> 00:00:12.132

김태동 선생님입니다.

00:00:12.232 --> 00:00:15.006

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문제 3,  
4, 5번을 들어갈 겁니다.

00:00:15.106 --> 00:00:19.993

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문제들이  
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

00:00:20.093 --> 00:00:22.230

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모르는  
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.

00:00:22.330 --> 00:00:23.897

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.

00:00:23.997 --> 00:00:29.783

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 특징으로  
가장 적절한 것은? 입니다.

00:00:29.883 --> 00:00:33.048

2번은 독자가 답변을 얻었을  
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00:33.148 --> 00:00:35.290

안 나와 있는 것을  
찾으면 되겠네요.

00:00:35.390 --> 00:00:36.643

어렵지 않습니다.

00:00:36.743 --> 00:00:39.419

윗글을 읽고 난 다음에 보기의 자료에  
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

00:00:39.519 --> 00:00:41.995

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00:42.095 --> 00:00:45.899

배경의 산세와 조화를  
이루는 우아한 용마루와,

00:00:45.999 --> 00:00:47.290

용마루가 뭘까요?

00:00:47.390 --> 00:00:53.312

용마루가 마루의  
종류 아닐까 싶어요.

00:00:53.412 --> 00:00:55.564

잘 모르겠는데 용마루라는  
게 안 나와 있네요.

00:00:55.664 --> 00:00:58.098

나왔습니다, 볼게요.

00:00:58.198 --> 00:01:03.047

용마루는 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 
가장 높은 수평 마루라고 하는 건데.

00:01:03.147 --> 00:01:05.929

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 
가장 높은 수평 마루.

00:01:06.029 --> 00:01:08.623

지붕 위에 있는 수평 마루를  
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

00:01:08.723 --> 00:01:12.607

처마 곡선, 이것은 전통 건축을  
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다.

00:01:12.707 --> 00:01:16.494

완만한 뒷산, 백자의 허리, 흰  
버선코, 전통 건축의 교과서에는

00:01:16.594 --> 00:01:23.294

이 안허리곡과 양곡을 조상들의  
미의식과 연관하여 설명해 왔다.

00:01:23.394 --> 00:01:25.246

안허리곡이 뭔지 나와야겠죠?

00:01:25.346 --> 00:01:28.270

그다음에 안곡이라는 게  
뭔지 나와야겠네요.

00:01:28.370 --> 00:01:30.910

조상들의 미의식과  
연관하여 설명해 왔다.

00:01:31.010 --> 00:01:35.221

그 미의식은 객관적 절대 타당성의 지위를  
획득한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.

00:01:35.321 --> 00:01:38.639

그러니까 무조건 객관적 절대  
타당성의 지위라고 하면

00:01:38.739 --> 00:01:40.440

무조건 이렇게 지어야 해.

00:01:40.540 --> 00:01:42.221

이것 이외에는 안 되는 거야,

00:01:42.321 --> 00:01:44.519

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 
절대 타당성의 지위를

00:01:44.619 --> 00:01:46.828

지니고 있다고 보는 거죠.

00:01:46.928 --> 00:01:50.515

예를 들어서 안허리곡이라는 것과

안곡,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.

00:01:50.615 --> 00:01:53.460

안곡은 지붕 모양이  
이렇게 되는 거고.

00:01:53.560 --> 00:01:55.643

위에서 봤을 때 이런  
모양인가 봐요.

00:01:55.743 --> 00:01:59.639

백자와 버전은 잘못 만들어도  
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다.

00:01:59.739 --> 00:02:03.425

그러나 건물은 잘못 만들면  
붕괴의 이험에 직면하게 되고

00:02:03.525 --> 00:02:06.170

목수의 입장에서는  
추녀 곡선이 없다면

00:02:06.270 --> 00:02:08.219

건물을 훨씬 더 만들기  
쉬웠을 것이고, 그렇죠?

00:02:08.319 --> 00:02:11.391

추녀 곡선이 없다면 그냥  
만들면 되는 거니까.

00:02:11.491 --> 00:02:13.853

구조적으로도 안정성을  
유지하게 된다.

00:02:13.953 --> 00:02:16.489

목수들은 과연 시각적  
미의식의 과시를 위해

00:02:16.589 --> 00:02:18.329

이 어려움을 무릅썼을까.

00:02:18.429 --> 00:02:21.581

아니라는 거죠, 뭔가 의도가  
있다는 이야기잖아요.

00:02:21.681 --> 00:02:24.857

이 곡선의 아름다움은 그  
자체가 목적이었을 수 없다.

00:02:24.957 --> 00:02:28.560

그 자체가 아름다움만 위해서  
만든 거는 아니다, 집이니까.

00:02:28.660 --> 00:02:32.703

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 
데서 얻게 된 우아한 결과물이다.

00:02:32.803 --> 00:02:34.711

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 
수 있다는 거예요.

00:02:34.811 --> 00:02:36.793

이 사람은 좀 다른  
관점으로 보고 있죠.

00:02:36.893 --> 00:02:39.694

그냥 단순한 미의식으로만  
본 것이 아니라

00:02:39.794 --> 00:02:43.657

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 
해결하는 데서 얻게 된

00:02:43.757 --> 00:02:46.594

그 결과가 바로 우아한  
결과물이 나왔다는 겁니다.

00:02:46.694 --> 00:02:49.258

곡선은 모서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자

00:02:49.358 --> 00:02:51.178

기둥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였다.

00:02:51.278 --> 00:02:54.820

모서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 
기둥을 보존하기 위한 거고

00:02:54.920 --> 00:02:57.980

추녀를 치켜들어 생긴 곡선이

00:02:58.080 --> 00:03:01.673

시각적 목적의 고안이 아니라는  
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데,

00:03:01.773 --> 00:03:03.624

시각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.

00:03:03.724 --> 00:03:05.384

아름답기 위해서 추녀를 들었어.

00:03:05.484 --> 00:03:07.413

그게 아니라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.  
왜?

00:03:07.513 --> 00:03:10.665

길이가 다른 두 건물을  
비교하면 된다.

00:03:10.765 --> 00:03:14.379

건물이 짧으면 처마는 과연  
우아한 곡선을 이룬다.

00:03:14.479 --> 00:03:17.990

그러나 건물이 길어지면  
상황이 달라진다.

00:03:18.090 --> 00:03:22.781

건물 중앙부의 처마  
선은 그냥 수평이다.

00:03:22.881 --> 00:03:26.082

중앙부의 처마 선은 수평입니다.

00:03:26.182 --> 00:03:27.714  
직선인 것이다.

00:03:27.814 --> 00:03:31.259  
그리고 우리가 들어 오던 그  
곡선은 건물 모서리에 이르러서야

00:03:31.359 --> 00:03:33.560  
불현듯 등장한다.

00:03:33.660 --> 00:03:38.069  
만일 안허리곡과 양곡이 시각적  
가치를 위한 것이라면

00:03:38.169 --> 00:03:42.684  
건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붕  
선은 끝에서 끝까지 적절하고

00:03:42.784 --> 00:03:44.254  
완만한 곡선을 유지해야 한다.

00:03:44.354 --> 00:03:47.634  
그러나 직선을 유지하다가  
마지막에 곡선을 이룬다는 거죠.

00:03:47.734 --> 00:03:50.249  
그러면 단순히 시각적이  
아니라는 거를

00:03:50.349 --> 00:03:52.010  
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.

00:03:52.110 --> 00:03:56.553  
그러나 남아 있는 건물들은 그런  
판단에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.

00:03:56.653 --> 00:03:59.570  
즉 다시 말하면 시각적인  
거는 아니라는 거죠.

00:03:59.670 --> 00:04:03.276  
변수는, 변수는 또 뭘까요?

00:04:03.376 --> 00:04:07.176  
변수는 빗물 입사각과  
태양 고도였다.

00:04:07.276 --> 00:04:10.067  
변수는 뭐였냐면 이런 뜻이구나.

00:04:10.167 --> 00:04:14.828  
변수는 빗물 입사각과,  
빗물이 어떻게 들어오느냐.

00:04:14.928 --> 00:04:17.020  
태양 고도가 문제가 됐던 거죠.

00:04:17.120 --> 00:04:20.541  
양곡은, 그림 계속 보세요.

00:04:20.641 --> 00:04:22.462  
양곡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?

00:04:22.562 --> 00:04:26.398  
그다음에 수평 투영  
길이를 최대화하면서

00:04:26.498 --> 00:04:32.165  
햇빛을 비춰 모서리 기둥 하부의 수분  
증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.

00:04:32.265 --> 00:04:33.925  
이게 바로 양곡이었습니다.

00:04:34.025 --> 00:04:37.074  
모서리 기둥 하부의 수분  
증발을 극대화하는 거고.

00:04:37.174 --> 00:04:41.709  
키쳐세운 추녀 각도는 태양 고도에  
따라 달라져야 했습니다.

00:04:41.809 --> 00:04:44.273  
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 
추녀가 어떻게 달라지고

00:04:44.373 --> 00:04:45.685  
이런 것들이 있나 보죠.

00:04:45.785 --> 00:04:47.644  
태양 고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.

00:04:47.744 --> 00:04:52.837  
태양의 남중 고도가, 태양의  
가운데에 있을 때의 고도가 낮다면

00:04:52.937 --> 00:04:56.144  
즉 태양이 충분히 낮게  
뜨는 북위도 지역에서는

00:04:56.244 --> 00:04:59.730  
쳐든 추녀의 의미가 줄어든다.

00:04:59.830 --> 00:05:03.292  
즉 다시 말하면, 남중  
고도가 낮다는 이야기는

00:05:03.392 --> 00:05:06.941  
태양이 충분히 낮게 뜨는 북위도  
지역에서는 쳐든 추녀의 의미,

00:05:07.041 --> 00:05:09.146  
쳐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,  
의미가 줄어든다.

00:05:09.246 --> 00:05:12.271  
그러나 저위도 지역에서는  
태양이 높이 뜬다.

00:05:12.371 --> 00:05:16.459  
모서리에서 햇빛을 더 깊이 받으려면

추너를 높이 들어야 한다.

00:05:16.559 --> 00:05:19.674

하지만 모서리에서도,  
모서리 부분 있잖아요?

00:05:19.774 --> 00:05:21.548

모서리 부분도 추너가  
높이 들어야지만

00:05:21.648 --> 00:05:23.854

태양을 받을 수 있다고  
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05:23.954 --> 00:05:24.833

구조 뭔지 알겠죠?

00:05:24.933 --> 00:05:30.016

이렇게 추너가 들려야지만  
태양을 받을 수 있다.

00:05:30.116 --> 00:05:31.820

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

00:05:31.920 --> 00:05:37.657

중국에서도 위도가 높은 지역의  
건물들은 거의 양곡이 없다.

00:05:37.757 --> 00:05:42.741

아차피 낮게 뜬 햇빛이 기둥  
하부에 충분히 닿기 때문에

00:05:42.841 --> 00:05:45.083

양곡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.

00:05:45.183 --> 00:05:48.515

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 
처마가 올라간다.

00:05:48.615 --> 00:05:50.760

왜? 햇빛을 많이  
받게 하려는 겁니다.

00:05:50.860 --> 00:05:55.984

치솟다 못해 그 끝단을 하늘로  
뒤틀가로 매달아 놓은 듯이 보인다.

00:05:56.084 --> 00:05:59.073

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.

00:05:59.173 --> 00:06:01.915

추너가 이처럼 솟아 있지  
않다면 그 그들로 인해

00:06:02.015 --> 00:06:05.934

기둥 하부가 계속 비에  
젖어 있게 되기 때문이다.

00:06:06.034 --> 00:06:08.414

그러니까 계속 젖어 있으면  
썩어들어가잖아요?

00:06:08.514 --> 00:06:10.972

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 
충분히 말리게 하려고

00:06:11.072 --> 00:06:13.138

추너를 높이 들었다는 이야기겠죠.

00:06:13.238 --> 00:06:17.428

양곡의 차이는 중국계 건축의  
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이 갖는

00:06:17.528 --> 00:06:19.806

미감 차이의 결과물이라고  
볼 수 없다.

00:06:19.906 --> 00:06:24.201

다시 말하면 미감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 
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없다.

00:06:24.301 --> 00:06:29.759

다시 말하면 태양이 어떻게  
비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.

00:06:29.859 --> 00:06:31.831

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

00:06:31.931 --> 00:06:36.939

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이런 일관성을  
주관적인 시각 언어로 해설하기는 어렵다.

00:06:37.039 --> 00:06:39.552

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 
결과물이다.

00:06:39.652 --> 00:06:43.713

나무가 수분, 바람, 햇빛의 요구를  
받아들이고 반영한 결과물이다.

00:06:43.813 --> 00:06:47.488

즉 진화의 결과물이다,  
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

00:06:47.588 --> 00:06:50.292

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 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06:50.392 --> 00:06:53.690

정답은 1번이에요.

00:06:53.790 --> 00:06:56.442

당연시하던 기존의 관점에 대해,

00:06:56.542 --> 00:07:03.758

당연시하던 기존 관점은 당연히 미적  
감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겠죠.

00:07:03.858 --> 00:07:05.831

의문을 제기하며 주제에  
접근하고 있다.

00:07:05.931 --> 00:07:07.886

정답은 1번입니다.

00:07:07.986 --> 00:07:11.158

어려운 어휘나 전문적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.

00:07:11.258 --> 00:07:17.205

전문적 어휘 용어, 어려운 어휘를 풀이해주고 이런 거는 아니죠.

00:07:17.305 --> 00:07:19.413

우리나라의 건축과 중국 건축을 비교하면서

00:07:19.513 --> 00:07:21.229

한국 건축의 우수성,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.

00:07:21.329 --> 00:07:22.724

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.

00:07:22.824 --> 00:07:24.360

일반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죠.

00:07:24.460 --> 00:07:26.980

목수와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라는 서로 다른 두 입장,

00:07:27.080 --> 00:07:29.428

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5번 선택지에 나왔네요.

00:07:29.528 --> 00:07:32.986

2번, 윗글을 읽은 독자가 답변을 얻었을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07:33.086 --> 00:07:37.362

양곡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였을까?

00:07:37.462 --> 00:07:40.465

나왔었죠, 양곡을 만드는 목적. 볼까요?

00:07:40.565 --> 00:07:46.065

양곡을 만드는 목적은 추녀 모서리 부분에

00:07:46.165 --> 00:07:50.902

수분을 빨리 말리게 하기 위해서다,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맞고요.

00:07:51.002 --> 00:07:53.074

미의식을 과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.

00:07:53.174 --> 00:07:55.395

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겠죠.

00:07:55.495 --> 00:07:58.771

건물의 길이에 따라 지붕 선에는

어떤 차이가 나타날까?

00:07:58.871 --> 00:08:00.109  
직선이었다가 곡선이고 이런 게,

00:08:00.209 --> 00:08:03.062  
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 
이야기했으니까 맞고.

00:08:03.162 --> 00:08:06.029  
나무로 된 기둥을 보호하기  
위해 어떤 장치를 했을까?

00:08:06.129 --> 00:08:07.822  
양곡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 
만들어진 거잖아요.

00:08:07.922 --> 00:08:09.132  
추녀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,

00:08:09.232 --> 00:08:13.520  
이것도 역시 저위도에 따라서  
태양 고도가 차이가 있는 거니까

00:08:13.620 --> 00:08:15.402  
햇빛이 들어오는가에  
따라 차이가 있으니까

00:08:15.502 --> 00:08:16.892  
양곡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.

00:08:16.992 --> 00:08:18.062  
3번 문제 풀겠습니다.

00:08:18.162 --> 00:08:20.461  
윗글을 읽고 난 뒤 보기의 자료에  
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

00:08:20.561 --> 00:08:22.096  
1번을 볼까요?

00:08:22.196 --> 00:08:23.439  
남중 고도가 높잖아요?

00:08:23.539 --> 00:08:25.114  
그러면 처마 밑으로 들어갈  
수 없잖아요, 빛이.

00:08:25.214 --> 00:08:27.669  
그러니까 처마 곡선의  
기능이 필요하겠죠.

00:08:27.769 --> 00:08:30.431  
곡선을 높여야지만 빛이  
들어갈 거 아니에요.

00:08:30.531 --> 00:08:32.639  
처마가 위에서 내리는  
빗물을 완벽하게 막아,

00:08:32.739 --> 00:08:34.959

완벽하게 막을 수 없잖아요.

00:08:35.059 --> 00:08:39.134  
그러니까 젖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 
비추게 하는 거니까 2번 틀렸고.

00:08:39.234 --> 00:08:41.340  
보온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,

00:08:41.440 --> 00:08:43.427  
단열 기능 때문에 이게 있다고  
이야기하지는 않았습시다.

00:08:43.527 --> 00:08:46.107  
안허리곡과 양곡은 빗물을  
효율적으로 증발시키기 위해,

00:08:46.207 --> 00:08:48.554  
이게 정답이죠, 정답은 4번인데.

00:08:48.654 --> 00:08:53.109  
그 고도나 빗물의 입사각이나 이것을  
통해서 밑에가 젖는단 말이야.

00:08:53.209 --> 00:08:55.483  
그러면 그 나무가 오랫동안  
살아남지 못하니까

00:08:55.583 --> 00:08:57.758  
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 
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08:57.858 --> 00:08:59.894  
정답이 4번이 되겠죠.

00:08:59.994 --> 00:09:03.288  
다음 질문 보겠습니다.

00:09:03.388 --> 00:09:05.023  
여러분, 두 번째입니다.

00:09:05.123 --> 00:09:07.020  
3D 프린팅에 대해서  
이야기하고 있는데

00:09:07.120 --> 00:09:10.442  
첫 번째 문제는 윗글에 대해  
이해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

00:09:10.542 --> 00:09:12.881  
윗글의 내용이 바로  
사실적 이해 문제예요.

00:09:12.981 --> 00:09:15.766  
그다음에 3단계에 해당하는  
내용 찾으면 되겠죠.

00:09:15.866 --> 00:09:19.101  
윗글을 참고해서 ㄴ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이다.  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09:19.201 --> 00:09:22.324  
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
00:09:22.424 --> 00:09:24.462  
책을 보겠습니다.

00:09:24.562 --> 00:09:28.281  
처음 3D 프린팅에 들으면 대부분  
지금껏 오래도록 친숙했던

00:09:28.381 --> 00:09:30.605  
데스크톱 컴퓨터를 떠올리곤 한다.

00:09:30.705 --> 00:09:32.887  
처음에는 데스크톱 프린트라는 게

00:09:32.987 --> 00:09:36.924  
여러분 집에 있는 그 띠디덕 띠띠덕  
나오는 프린트를 생각하잖아요.

00:09:37.024 --> 00:09:39.446  
잉크젯 프린터와 3D  
프린터의 차이 중 하나는

00:09:39.546 --> 00:09:41.860  
바로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.

00:09:41.960 --> 00:09:44.970  
3차원이고 2차원이고의  
차이가 있겠죠.

00:09:45.070 --> 00:09:48.940  
잉크젯 프린터는 평면에 잉크를  
분사하여 2차원에 출력하지만

00:09:49.040 --> 00:09:55.406  
3D 프린터는 당신이 손에 짚 수  
있는 3차원의 물체를 찍어낸다.

00:09:55.506 --> 00:09:59.064  
그러니까 입체적이라는 거겠죠.

00:09:59.164 --> 00:10:01.605  
3D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 
전달되는 지침에 따라

00:10:01.705 --> 00:10:05.670  
재료를 한 층, 한 층 쌓아가는  
방식으로 물건을 찍어낸다.

00:10:05.770 --> 00:10:09.577  
3D 프린팅은 사실상 프린팅이  
아니라 생산 과정이다.

00:10:09.677 --> 00:10:11.563  
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

00:10:11.663 --> 00:10:17.030  
3D 프린팅 산업을 지칭하는  
공식적인 명칭인 적층 가공은,

00:10:17.130 --> 00:10:19.232  
적층이라는 거는 쌓아두는 거거든요.

00:10:19.332 --> 00:10:22.513  
그 쌓아둔다는 게 바로 뒤를 쌓아두는  
거냐면, 글의 내용을 보죠.

00:10:22.613 --> 00:10:28.647  
물건을 만들 때  
플라스틱 가공물이라든가

00:10:28.747 --> 00:10:32.783  
이런 것들을 녹여서 거기에 분사를 해서  
쌓아놓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10:32.883 --> 00:10:36.285  
적층 가공은 이 기계의 작동  
방식을 잘 설명하고 있다.

00:10:36.385 --> 00:10:40.073  
적층이라는 거는 3차원  
물체를 만들어내기 위해

00:10:40.173 --> 00:10:43.252  
원료를 여러 층으로  
쌓거나 결합시키는

00:10:43.352 --> 00:10:46.374  
3D 프린팅이 작동하는  
방식을 지칭한다.

00:10:46.474 --> 00:10:50.287  
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한 줄,  
한 줄, 한 줄 쌓아가는 거죠.

00:10:50.387 --> 00:10:53.823  
그래서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 
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
00:10:53.923 --> 00:10:57.128  
가공이란 용어는 3D  
프린터가 예측 가능하고

00:10:57.228 --> 00:10:59.615  
반복적이며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

00:10:59.715 --> 00:11:02.017  
이러한 층들을 만들 수  
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.

00:11:02.117 --> 00:11:03.739  
이게 바로 가공이라고 합니다.

00:11:03.839 --> 00:11:05.057  
적층하고 가공.

00:11:05.157 --> 00:11:06.856  
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.

00:11:06.956 --> 00:11:08.995  
쌓아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

00:11:09.095 --> 00:11:14.980  
각 층을 레이어라고 하는데 두께는  
약 0.01~0.08mm로

00:11:15.080 --> 00:11:18.312  
매우 얇은 층이 여러  
개가 합쳐지는 거예요.

00:11:18.412 --> 00:11:20.052  
그 레이어가 합쳐지는 거죠.

00:11:20.152 --> 00:11:22.733  
3D 프린트로 출력한  
물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

00:11:22.833 --> 00:11:26.525  
각 레이어가 계단 형식으로  
쌓인 질감을 확인할 수 있다.

00:11:26.625 --> 00:11:30.688  
이때 레이어의 두께가 얇을수록  
정교한 물건을 출력할 수 있다.

00:11:30.788 --> 00:11:34.221  
얇으면 얇을수록 더  
정교해질 수 있겠죠.

00:11:34.321 --> 00:11:36.846  
3D 프린팅 초기의 회의론자들은,

00:11:36.946 --> 00:11:39.160  
3D 프린팅을 별로라고  
생각했던 사람들은

00:11:39.260 --> 00:11:43.764  
이 신기술이 진짜 제조 기계들 사이에  
낄 자리가 없다고 일축했다.

00:11:43.864 --> 00:11:45.658  
이 3D 프린팅 안  
된다, 이런 거죠.

00:11:45.758 --> 00:11:49.238  
초기에는 3D 프린터가 금속 부품을  
제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.

00:11:49.338 --> 00:11:51.839  
요즘의 3D 프린터는  
기존의 제조 과정을 통해

00:11:51.939 --> 00:11:54.980  
성형하기 어려운 단단한  
금속들, 즉 강철, 티타늄,

00:11:55.080 --> 00:11:57.720  
그리고 텅스텐마저  
프린트할 수 있습니다.

00:11:57.820 --> 00:11:59.492  
최근 기술의 발달이죠.

00:11:59.592 --> 00:12:01.858  
3D 프린터의 작동 방식을 보자.

00:12:01.958 --> 00:12:07.250  
디자인 파일에 따라 3D  
프린터는 가루로 분쇄되었거나

00:12:07.350 --> 00:12:11.605  
녹아 있는 액체 형태의  
소재를 일정한 패턴을 따라

00:12:11.705 --> 00:12:14.743  
평면에 단단하게 응고시킨다.

00:12:14.843 --> 00:12:20.316  
가루로 분쇄되거나 아니면 녹아  
있는 액체 형태의 소재를

00:12:20.416 --> 00:12:23.942  
일정한 패턴에 따라 단단하게  
응고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

00:12:24.042 --> 00:12:30.367  
첫 번째 레이어가 굳은 후  
3D 프린터의 프린트 헤드는

00:12:30.467 --> 00:12:31.690  
헤드라는 게 있어요.

00:12:31.790 --> 00:12:35.908  
원위치로 돌아와서 레이어 위에 또  
하나의 얇은 층을 형성시킨다.

00:12:36.008 --> 00:12:38.269  
레이어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.

00:12:38.369 --> 00:12:41.239  
두 번째 레이어가 굳고  
나면, 한 줄 깔았어요.

00:12:41.339 --> 00:12:44.623  
그다음에 또 한 줄을 굳고 나면  
프린트 헤드는 다시 돌아가

00:12:44.723 --> 00:12:48.925  
그 위에 얇은 층을 더하고 또 더하는  
방식으로 같은 공정을 반복한다.

00:12:49.025 --> 00:12:50.587  
어떤 건지 알겠죠?

00:12:50.687 --> 00:12:54.527  
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얇은 층들이 쌓여  
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.

00:12:54.627 --> 00:12:56.564  
이게 바로 3D 프린터죠.

00:12:56.664 --> 00:12:59.316  
3D 프린터는 잘라내거나

금형을 만들어서 주조하는

00:12:59.416 --> 00:13:03.611  
전통적인 생산 방법에 따라 물건을  
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.

00:13:03.711 --> 00:13:07.115  
잘라내거나 어떤 형태에서  
찍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

00:13:07.215 --> 00:13:12.026  
한 겹, 한 겹 쌓아가는 거니까  
기존의 물건 만드는 것과 다르죠.

00:13:12.126 --> 00:13:14.519  
레이어는 한 층을  
레이어라고 하잖아요.

00:13:14.619 --> 00:13:16.763  
레이어를 활용해 물체를  
만들어내는 방법은

00:13:16.863 --> 00:13:21.366  
디지털 콘셉트의 더욱 다양한 물체들을  
만들어내는 것을 가능케 한다.

00:13:21.466 --> 00:13:24.634  
자동차의 계기판은 다양한 부분들이,

00:13:24.734 --> 00:13:27.879  
자동차 계기판 이런 것들이 바로  
그거를 활용해서 만드나 봐요.

00:13:27.979 --> 00:13:30.707  
다양한 부분들이 제한된  
공간에 딱 들어맞게 하려고

00:13:30.807 --> 00:13:35.706  
3D 프린터로 찍어낸 프로토타입을  
활용해서 디자인되었다.

00:13:35.806 --> 00:13:37.988  
자동차 계기판의 예시가 나왔죠.

00:13:38.088 --> 00:13:40.757  
만일 당신이 콧속  
보청기를 사용한다면

00:13:40.857 --> 00:13:44.193  
아마도 그것 역시 3D 프린터로  
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.

00:13:44.293 --> 00:13:48.321  
광학 스캔을 통해 속귀의 정확한  
모양을 캡처한 데이터를

00:13:48.421 --> 00:13:50.625  
3D 프린터로 찍어낸 것이다.

00:13:50.725 --> 00:13:56.127  
콧속 모양까지 확실하게 알아내서 거기에

맞게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.

00:13:56.227 --> 00:14:00.158

3D 프린팅으로 찍어낸  
티타늄과 세라믹 무릎 관절은

00:14:00.258 --> 00:14:02.796

전 세계 많은 사람이  
이미 사용하고 있다.

00:14:02.896 --> 00:14:05.797

3D 프링팅이라는  
독특한 제조 기술은

00:14:05.897 --> 00:14:07.523

이전에 우리가 결코  
만들어낼 수 없었던

00:14:07.623 --> 00:14:09.634

모양의 물체들을 만들어내는  
것도 가능하게 한다.

00:14:09.734 --> 00:14:13.237

지난 몇 년 동안 3D 프린팅  
기술은 컴퓨터의 처리 능력,

00:14:13.337 --> 00:14:16.566

새로운 디자인 소프트웨어  
및 소재의 엄청난 발전과

00:14:16.666 --> 00:14:18.923

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 
혁신, 인터넷 등에 힘입어

00:14:19.023 --> 00:14:20.944

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.

00:14:21.044 --> 00:14:24.430

3D 프린터는 복잡한  
디자인을 실물로 구현해 내고

00:14:24.530 --> 00:14:26.309

글이 상당히 쉽네요.

00:14:26.409 --> 00:14:29.251

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 
재료를 결합하는 데 있어

00:14:29.351 --> 00:14:34.340

다른 어떤 생산 방식보다 정확하고  
다채로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.

00:14:34.440 --> 00:14:37.196

3D 프린터가 어떤 일을 했는지  
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

00:14:37.296 --> 00:14:38.998

문제가 너무 쉽네요.

00:14:39.098 --> 00:14:42.539

1번,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
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4:42.639 --> 00:14:44.700

3D 프린터는 얇은 층이 쌓이는 방식이다.

00:14:44.800 --> 00:14:46.882

레이어라고 하는 거죠, 적절합니다.

00:14:46.982 --> 00:14:49.989

잉크젯 프린터와 3D 프린터의 큰 차이점은 출력물의 차원에 있다.

00:14:50.089 --> 00:14:52.070

2차원이나, 3차원이나의 차이점이죠.

00:14:52.170 --> 00:14:55.242

3D 프린터는 성형하기는 어려운 금속 재질의 부품도 제조할 수 있다.

00:14:55.342 --> 00:14:57.394

최근에 텅스텐 금속까지 됐다고 했으니까.

00:14:57.494 --> 00:14:59.884

3이 프린팅은 실제적으로 프린팅이라기보다 생산 과정으로 볼 수 있다.

00:14:59.984 --> 00:15:01.604

그래서 적층 가공이라고 했으니까 맞죠.

00:15:01.704 --> 00:15:04.574

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발전하여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.

00:15:04.674 --> 00:15:06.240

이미 상용화됐어요.

00:15:06.340 --> 00:15:09.241

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.

00:15:09.341 --> 00:15:11.167

거울 보기와 같이 3단계로 나누었을 때

00:15:11.267 --> 00:15:13.137

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5:13.237 --> 00:15:16.666

레이어 만들었어, 또다른 레이어 형성하고

00:15:16.766 --> 00:15:18.661

반복적으로 쌓아가는 거죠.

00:15:18.761 --> 00:15:23.335

1번, 작동 과정 1은 액체나 가루를

평면에 응고시키는 단계이다.

00:15:23.435 --> 00:15:25.372  
그래야지 레이어를 만드는 거니까.

00:15:25.472 --> 00:15:28.347  
작동 과정 2에서는 프린터  
헤드가 원위치로 다시 돌아와서

00:15:28.447 --> 00:15:30.242  
또다른 레이어를  
쌓는 거니까 맞죠.

00:15:30.342 --> 00:15:33.851  
작동 과정 3에서는 층이 쌓이면서  
3차원 물체가 점점 만들어지겠죠.

00:15:33.951 --> 00:15:35.020  
맞습니다.

00:15:35.120 --> 00:15:38.437  
작동의 전 과정은 금형을  
만들어 주조하는 생산 방식과

00:15:38.537 --> 00:15:39.604  
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.

00:15:39.704 --> 00:15:43.275  
형태를 넣어서 거기에 부어서  
짜내는 게 아니거든요.

00:15:43.375 --> 00:15:44.966  
그러니까 정답 4번.

00:15:45.066 --> 00:15:48.696  
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체계적인  
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거죠.

00:15:48.796 --> 00:15:51.677  
보기는 윗글을 참고로 하여 ㄴ에  
대해 인터뷰한 내용이다.

00:15:51.777 --> 00:15:54.270  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5:54.370 --> 00:15:55.700  
어떤 제품이 있을까?

00:15:55.800 --> 00:15:57.915  
자동차 계기판, 보청기 있었죠.

00:15:58.015 --> 00:16:00.413  
무궁무진하다, 구체적으로  
말씀해 주시죠.

00:16:00.513 --> 00:16:02.984  
무릎 관절에 현재 사용되고  
있다고 이야기했구요.

00:16:03.084 --> 00:16:05.275  
불가능을 가능으로

만드는 기술이네요.

00:16:05.375 --> 00:16:07.118  
환자의 몸에 ~ 만드는 것이 3D  
프린터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거든.

00:16:07.218 --> 00:16:08.227  
이것도 맞죠.

00:16:08.327 --> 00:16:10.262  
환자 귀를 통해서, 나왔죠.

00:16:10.362 --> 00:16:12.922  
질병, 선천적 장애  
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

00:16:13.022 --> 00:16:15.778  
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3D  
프린팅이 희망이 될 수 있겠네요?

00:16:15.878 --> 00:16:18.919  
소개되자마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 
꿈의 기술로 환영받았습니다.

00:16:19.019 --> 00:16:19.942  
틀렸죠.

00:16:20.042 --> 00:16:22.246  
처음에는 이게 과연 할 수  
있을까, 라고 생각했으니까.

00:16:22.346 --> 00:16:24.589  
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

00:16:24.689 --> 00:16:26.639  
문제가 상당히 쉽네요.

00:16:26.739 --> 00:16:29.228  
마지막 지문 넘어가겠습니다.

00:16:29.328 --> 00:16:31.366  
마지막 지문도 어렵지 않아서,

00:16:31.466 --> 00:16:34.896  
1번은 보기와 같이 내용을  
정리해라, 이렇게 이야기했고요.

00:16:34.996 --> 00:16:37.810  
A에 나타난 주장을  
비판한 내용이고요.

00:16:37.910 --> 00:16:40.588  
a,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
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.

00:16:40.688 --> 00:16:42.306  
성장과 분배예요.

00:16:42.406 --> 00:16:44.249  
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 
중 하나는 양극화다.

00:16:44.349 --> 00:16:47.877

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호에서 양극화를 우리 사회의

00:16:47.977 --> 00:16:49.652

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고 있다.

00:16:49.752 --> 00:16:52.369

양극화는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의 갈등이 짝아요.

00:16:52.469 --> 00:16:55.125

양극화의 현실은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매우 심각하다.

00:16:55.225 --> 00:16:57.903

대기업, 중소기업, 수출, 내수,

00:16:58.003 --> 00:17:01.214

정규직, 비정규직, 소득, 소비의 양극화는 물론

00:17:01.314 --> 00:17:05.210

최근에는 문화 및 일상생활에서의 양극화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.

00:17:05.310 --> 00:17:08.575

문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.

00:17:08.675 --> 00:17:12.437

양극화 해소 전략은 크게 성장 중심 정책과

00:17:12.537 --> 00:17:14.332

분배 중심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.

00:17:14.432 --> 00:17:16.440

먼저 파이부터 키우자는 거죠.

00:17:16.540 --> 00:17:18.614

먹을 거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17:18.714 --> 00:17:22.465

선성장론은 분배 중심론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리다.

00:17:22.565 --> 00:17:23.839

성장을 먼저 하는 거죠.

00:17:23.939 --> 00:17:27.021

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이 간단치 않다.

00:17:27.121 --> 00:17:31.658

성장에 매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분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.

00:17:31.758 --> 00:17:34.985

분배로 귀결된다는 발상은  
세계화가 가져오는

00:17:35.085 --> 00:17:36.822

고용 없는 성장을  
고려하지 않은 논리다.

00:17:36.922 --> 00:17:39.244

즉 다시 말하면 세계화는  
고용 없는 성장.

00:17:39.344 --> 00:17:41.611

고용하지 않고 계속  
몸집만 불리는 거예요.

00:17:41.711 --> 00:17:44.456

부자들만 더 부자되고 부익부  
빈익빈이 되는 거죠.

00:17:44.556 --> 00:17:48.568

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것은  
세계화 시대의 산업 구조 변동과

00:17:48.668 --> 00:17:50.046

긴밀히 연관돼 있다.

00:17:50.146 --> 00:17:52.405

산업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 
많이 필요없는 산업이잖아요?

00:17:52.505 --> 00:17:54.547

금융 산업, 컴퓨터  
산업 이런 거니까.

00:17:54.647 --> 00:17:57.792

거시적으로 보면 첨단  
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

00:17:57.892 --> 00:17:59.822

고용률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죠.

00:17:59.922 --> 00:18:03.036

예를 들어서 10억 원 매출당  
전체 산업의 평균 고용은

00:18:03.136 --> 00:18:08.373

25.4명 수준인 것에 반해, 디지털  
산업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.

00:18:08.473 --> 00:18:10.927

그러니까 고용이 점점  
더 안 되는 거죠.

00:18:11.027 --> 00:18:13.950

그다음에 세계화 물결을  
성공적으로 탄 국가들 역시

00:18:14.050 --> 00:18:17.305

양극화는 성장이 해결해  
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

00:18:17.405 --> 00:18:19.678

이에 대한 다각적인  
대책을 추진해 왔다.

00:18:19.778 --> 00:18:23.865

그러면 여기서도 성장 중심 정책에  
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.

00:18:23.965 --> 00:18:26.247

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복지를  
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

00:18:26.347 --> 00:18:28.003

분배 중심 정책도 해법은 아니다.

00:18:28.103 --> 00:18:29.279

둘 다 아니라는 거죠.

00:18:29.379 --> 00:18:32.337

흔히 성공한 복지 국가를 일컫던  
사례로 평가돼온 독일 모델과

00:18:32.437 --> 00:18:35.345

북유럽 모델은 최고 적지  
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00:18:35.445 --> 00:18:37.266

이들 국가는 기업의  
투자 환경을 개선하고

00:18:37.366 --> 00:18:39.497

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

00:18:39.597 --> 00:18:43.414

세금 많이 내더라도  
분배 똑같이 하니까

00:18:43.514 --> 00:18:47.535

근로 의욕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.

00:18:47.635 --> 00:18:50.207

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해왔지만

00:18:50.307 --> 00:18:51.948

여전히 묘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.

00:18:52.048 --> 00:18:56.051

최근 이들 국가는 복지 정책을  
완화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,

00:18:56.151 --> 00:18:58.181

노동 시장의 유연성은,

00:18:58.281 --> 00:19:01.801

쉽게 말하면 노동 시장의 변화를  
줄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19:01.901 --> 00:19:04.032

경직되지 않고 변화를  
줄 수 있다는 거죠.

00:19:04.132 --> 00:19:06.069  
계약직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요.

00:19:06.169 --> 00:19:08.014  
비정규직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요.

00:19:08.114 --> 00:19:10.619  
기업들은 더 싼 임금을 찾아  
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.

00:19:10.719 --> 00:19:13.719  
국민 경제가 정체되면서 빈부  
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

00:19:13.819 --> 00:19:15.256  
이 모델들의 현주소다.

00:19:15.356 --> 00:19:19.578  
더구나 이 모델을 도입하던 때와  
우리가 처한 상황은 거리가 멀다.

00:19:19.678 --> 00:19:22.464  
이 모델이 서구에 도입된  
것은 1950~60년대

00:19:22.564 --> 00:19:26.184  
자본주의 황금 시대라는 특정한 역사,  
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가능했지만

00:19:26.284 --> 00:19:29.899  
우리가 처한 현실은  
그렇지 않다는 거죠.

00:19:29.999 --> 00:19:32.795  
요컨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

00:19:32.895 --> 00:19:36.959  
세계화에 걸맞은 성장 분배 정책이  
화학적으로 결합해야 한다.

00:19:37.059 --> 00:19:38.382  
이게 핵심입니다.

00:19:38.482 --> 00:19:41.849  
선택과 집중에 기반해 동반 성장의  
동력을 최대한 확충하는 동시에

00:19:41.949 --> 00:19:47.099  
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  
및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.

00:19:47.199 --> 00:19:48.584  
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,

00:19:48.684 --> 00:19:50.816  
조세,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일  
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.

00:19:50.916 --> 00:19:55.253  
어느 정부나 정당이건 조세  
정책의 경우 부유층과

00:19:55.353 --> 00:19:58.193

중산층을 의식한 나머지  
변화의 문턱 앞에 서면

00:19:58.293 --> 00:20:00.126

자연 망설이게 마련이다.

00:20:00.226 --> 00:20:03.763

세금 더 걷게 해야 될까, 그러면  
망설여지는 게 현실이잖아요.

00:20:03.863 --> 00:20:07.995

증세를 하려고 하면 일부 부유층은  
정부 정책에서 이탈하기까지 한다.

00:20:08.095 --> 00:20:10.968

반발하는 세력들이  
생기게 마련이잖아요.

00:20:11.068 --> 00:20:12.373

방법은 하나다.

00:20:12.473 --> 00:20:15.932

동반 성장의 동력과 연관해  
조세 및 재정에 대한

00:20:16.032 --> 00:20:17.587

새로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.

00:20:17.687 --> 00:20:20.670

공론화는 사회적인 토론과  
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.

00:20:20.770 --> 00:20:22.316

여론이 형성돼야 돼.

00:20:22.416 --> 00:20:25.563

머릿속에서는 선진 국가를 꿈꾸면서  
현실에서는 변화를 거부한다면

00:20:25.663 --> 00:20:28.467

양극화에서는 사실 요원하다, 멀다.

00:20:28.567 --> 00:20:31.070

양극화 해소가 국민적  
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

00:20:31.170 --> 00:20:33.479

이 이슈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 
쟁점화해서는 안 된다.

00:20:33.579 --> 00:20:36.839

양극화 해소는 전략적 이슈가  
아니라 국가적 과제다.

00:20:36.939 --> 00:20:41.457

정부든 정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 
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,

00:20:41.557 --> 00:20:42.579

결국 뭐예요?

00:20:42.679 --> 00:20:44.082  
논의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.

00:20:44.182 --> 00:20:46.065  
각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요.

00:20:46.165 --> 00:20:47.547  
문제 보겠습니다.

00:20:47.647 --> 00:20:53.576  
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정리하였을  
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20:53.676 --> 00:20:58.430  
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 대해서  
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

00:20:58.530 --> 00:21:00.600  
앞에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고요.

00:21:00.700 --> 00:21:04.573  
그다음에 양극화의 구체적인  
문제점이라고 했는데

00:21:04.673 --> 00:21:05.657  
이게 나오지 않았어요.

00:21:05.757 --> 00:21:06.838  
문제점이 있기는 있다.

00:21:06.938 --> 00:21:09.398  
뭐라고 했냐면 시한폭탄이라는  
비유를 써서

00:21:09.498 --> 00:21:11.089  
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,

00:21:11.189 --> 00:21:13.099  
구체적인 문제점이 나오지는 않았죠.

00:21:13.199 --> 00:21:16.286  
성장 중심 정책, 분배  
중심 정책 설명했고.

00:21:16.386 --> 00:21:19.634  
해소 방안, 마지막에 논의가  
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.

00:21:19.734 --> 00:21:21.558  
구체적인 문제점이 안 나왔네요.

00:21:21.658 --> 00:21:25.216  
A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한  
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21:25.316 --> 00:21:29.596  
A는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 
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

00:21:29.696 --> 00:21:34.564

증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 
더 많이 걷어들이잖아요.

00:21:34.664 --> 00:21:38.373

가용 소득이 줄어들어, 쓸  
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죠.

00:21:38.473 --> 00:21:39.750

사람들이 돈이 없잖아.

00:21:39.850 --> 00:21:41.169

소비가 위축된다.

00:21:41.269 --> 00:21:45.539

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이  
투자를 안 하게 되죠.

00:21:45.639 --> 00:21:47.589

결국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.

00:21:47.689 --> 00:21:50.462

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.

00:21:50.562 --> 00:21:57.529

1번 보면 양극화 해결에 대해서  
이 사람은 성장과 분배를

00:21:57.629 --> 00:22:00.191

동시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

00:22:00.291 --> 00:22:04.345

둘 다 연관돼서 비판된 거를  
찾으면 가능하겠습니다.

00:22:04.445 --> 00:22:08.842

국민 대다수 지지를 받지  
못하는 증세 정책은,

00:22:08.942 --> 00:22:11.097

이거는 결국 보세요.

00:22:11.197 --> 00:22:15.430

A에 나타난 것은 화학적으로  
결합해야 된다고 했는데

00:22:15.530 --> 00:22:18.227

그 결합했을 때 문제점을  
지적한 거니까 이게 맞죠.

00:22:18.327 --> 00:22:21.012

애는 뭐냐면 국민들  
지지받아야 된다는 거니까

00:22:21.112 --> 00:22:23.731

이 A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.

00:22:23.831 --> 00:22:27.285

그다음에 성장 없이 재분배하는 것은  
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것이다.

00:22:27.385 --> 00:22:29.722

이것은 일시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으나, 빈곤을 초래한다.

00:22:29.822 --> 00:22:31.773

이거는 성장에 대한 비판만 나왔으니까.

00:22:31.873 --> 00:22:34.172

빈부 격차로 사회 문제는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.

00:22:34.272 --> 00:22:36.906

빈부 격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까 틀린 거고.

00:22:37.006 --> 00:22:40.066

집중을 통해서 성장만을 추구하게 되면 업종간의 불균형은 심화된다.

00:22:40.166 --> 00:22:42.488

업종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고,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.

00:22:42.588 --> 00:22:45.033

이거는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

00:22:45.133 --> 00:22:48.682

둘 다 비판하고 있는 거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쥬.

00:22:48.782 --> 00:22:52.571

a,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22:52.671 --> 00:22:56.855

a는 적극적인 자세 및 재정, 정책 추진하는 거고.

00:22:56.955 --> 00:23:00.960

새로운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23:01.060 --> 00:23:05.559

정답은 b는 a를 성공시키기 위한 밑바탕이다.

00:23:05.659 --> 00:23:07.056

이게 정답이쥬.

00:23:07.156 --> 00:23:11.746

a를 성공시키려면 공론화해야지만,

00:23:11.846 --> 00:23:15.133

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a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니까

00:23:15.233 --> 00:23:17.961

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

00:23:18.061 --> 00:23:22.104

여러분, 여기까지 독서를  
전부 다 마쳤고요.

00:23:22.204 --> 00:23:25.007

유형 2개하고 실전 문제를  
모두 마쳤습니다.

00:23:25.107 --> 00:23:27.043

다음 시간에 문법 들어갈 텐데,

00:23:27.143 --> 00:23:29.554

문법 내용들 여러 가지  
내용들이 많으니까

00:23:29.654 --> 00:23:33.203

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 
진행하겠습니다.

00:23:33.303 --> 00:23:35.442

비문학은 다시 한 번  
복습 부탁드립니다.

00:23:35.542 --> 00:23:38.017

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